

부활 제 5 주일

기도서 296면 (B해)

제1독서 : 사 도 9 : 26-31

제2독서 : I 요한 3 : 18-24

복 음 : 요 한 15 : 1-8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5:5).

강론

나를 떠나지 말라

이 재후 신부 / 노승동 주임

인생은 끊임없이 어딘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길이 올바른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 분별조차 못하고 행방없는 인생의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나 자신은 아닌지 살펴봅시다.


오늘 내게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 폭력을 휘두르며 지상 천국이라도 이룰듯이 의기양양하던 사람이 세계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하루 아침에 쇠고랑을 차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받아들였던들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요한 15:5)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을 가지마다 전해 주듯이 예수님은 신앙인에게 하느님 생명의 전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체험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세속에 사로잡힌 우리는 영생의 길을 버리고 죽음의 길로 들어설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저버리고 기분이나 감정에만 사로잡혀 즐거움만 쫓는다면 장래가 어두울 것은 뻔한 일입니다. 신앙인도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영적인 죽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의 길을 걷고 싶어하기는 하나 얼마나 자주 주저앉거나 망서렸습니까? 가지의 열매는 나무를 떠나서는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한 채, 영양실조의 불품없는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처럼, 나 자신이 바로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까? 영적으로 허약해진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요한 15:5).

늘상 자신 안에는 육적인 나와 영적인 내가 싸움을 합니다. 그 싸움에서 영적인 내가 육적인 나를 이길 때에는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육화되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속박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영적인 체험을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아갑시다.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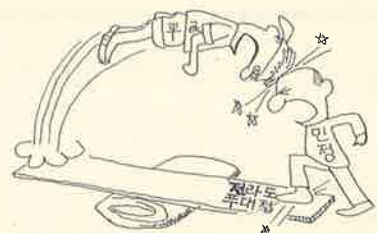
총선 유감(4)

13대 총선은 우리 나라 헌정 이래 최대의 난잡한 선거요, 3.15부정선거를 무색케 하는 무법(無法) 선거라는 지적이 있다. 이번 선거는 관권개입은 말할 것도 없고, 현금을 넣은 우편물이 선을 보는가 하면, 흑색선전과 폭력이 판을 치는 사상 유례가 없는 혼탁한 선거가 되고 말았다. 13이라는 숫자가 끼어서 그런지 30은전에 주권을 파는 꼴사나운 선거가 되고만 느낌조차 든다.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역사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그것은 5.16 군사 쿠데타로 발판을 마련한 유신 악법의 군사독재로 시작되었다. 뒤를 이어서는, 지키라는 전방을 비워둔 채, 권력 암투에 미쳐버렸던 12.12 사태는 끝내 광주에 피를 뿌리고 말았다. 이렇게 시작되어 이어 온 군사정권이니 그 끝이 깨끗할 리 없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의 의혹, 컴퓨터 조작설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나 그 진원지에 대한 의법조치가 없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 MBC 텔레비전의 화면조정 그림에 나타난 북제주도의 개표결과를 무엇을 반증하는 것인가? 결국 이 정권은 컴퓨터 조작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말인가?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준 사건은, 선거 막바지에 후보사퇴의 용단을 내린 몇 사람의 이야기다. 적어도 야권의 입장에서 소신을 가지고 임후보했지만, 결과가 여당을 돕는 꼴이라서 후보를 사퇴한다는 것이다. 그중의 하나- “16년의 수난을 이겨내고 10년 만에 사면 복권되어 정다운 고향에 돌아온 것을 감사드립니다”라는 광고문안에 담겨진 한(恨)을 멋있게 승화시킨 바오로 형제가 보내준 기쁜 소식에 박수를 보낸다. (4월 26일 씀)

숲정이 산책



너무 세게 밟았어!

성 모 성 월

교회는 생물이 활기에 차 제 모습을 드러내는 5월을 성모 성월로 정하고 성모 마리아를 공경한다. ‘하와를 통하여 죽음 이 왔지만 마리아를 통하여 생명’이 왔으므로 성모 마리아는 ‘산 사람들의 어머니’가 되셨기 때문이다.

“은총을 가득히 받은”(루가 1:28)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가 1:38)라고 동의함으로써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받아들여시고 당신 아드님과 함께 구원신비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온전히 바치셨다(교회 56 참고).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과 회생에 동참하기를 원하셨고 모성애로써 함께 봉헌하신 성모 마리아는 신앙의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일치를 충실히 보존하셨다.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과 회생에 동참하기를 원하셨고 모성애로써 함께 봉헌하신 성모 마리아는 신앙의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일치를 충실히 보존하셨다.

성모 마리아는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후에도 인류 구원을

위하여 계속하여 당신 전구로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얻어 주신다. 당신 모성애로서 당신 아드님의 형제들이 지상 여정에서 위험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돌보시어 영원한 고향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때문에 교회에서는 복되신 동정녀를 변호자, 보조자, 협조자, 중재자라는 명칭으로 부른다(교회 62 참고).

〈우리의 생활〉

* 성모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낳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모님을 배우고 익혀 나가야 한다.

성모님을 배우고 익히는 방법 중에는 ‘성모 마리아께서 나의 처지라면 이 순간에 어떻게 처신하실까?’ 하고 스스로 자문해 보는 방법도 있겠고, 성모 호칭기도를 하면서 성모님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기에게 가장 부족한 덕을 선택하여 그 덕을 집중적으로 실천해보자. 이 성모 성월에 로사리오 기도를 자주 바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신 성모님과 같이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노력함이 좋겠다.



성서와 함께

성서 고정란(固定欄)을 마련하며...

‘사람이 뺨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마태 4:4)는 말씀처럼 성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삶의 지표이며 생(生)의 활력소임을 부정할 사람을 한 명도 없다. 하지만 성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먼 책이다. 생소한 문화, 지리, 사상 속에서 만들어진 책, 그것도 이천 년 4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되어진 것들의 ‘모음’이기에 20세기의 우리 한국민이 우리의 것으로 받아 들이기에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난제(難題)들을 안고 있다. 지금 우리의 처지는 “누가 나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알지 어떻게 알겠읍니까?” 하며 안타까워 하던 ‘에디오피아’ 내시의 처지인 것이다(사도 행:32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는 어떻게

게든 이해하고 이해되어져야 할 구원의 책이기에, 숲정이를 이용한 교육란을 위해 고심하던 차에 아주 기쁘고 반가운 신부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다. 그분은 지난 4월, 벨기에 ‘루벵’ 대학에서 8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세계 어느 가톨릭 대학에서도 강의하실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고 귀국하신 ‘신학 박사 정태현’ 신부님이시다. 더욱이 신부님의 전공 학문이 「성서 주석학」이시기에 더욱 반가운 일이다.

앞으로 이 난(欄)은 정신부님께서 담당하셔서 체계적인 성서 이해에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지치고 지친 예수께 다가선 유혹자(악마)에게 주계선 대번 ‘성서에...’ 라고 응답하신다. ‘올바른 성서 이해’야말로 세상 유혹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최고의 무기이다. 한 주도 빠짐없이 읽어야 할 것이다.

- 편집부 -

황수경산부인과

여 의 사 활 수 경
산부인과전문 (크리스티나)
이 승 렬 (엘리아)
관동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 골목
☎ 84-7272

한숲요가원

몸이 아프신 분, 좋은 몸매,
척추교정, 불안한 분을 위한
요가, 단식
조 태훈 (알베르도)
이 명수 (루 시 아)
전주 백화점 뒷골목 3층
☎ 83-4041

황소영스튜디오 (피아노 전문 학원)

유치반 · 기초반 · 중고부
입시부 전문지도
원장 : 황 소 영 (아나다시아)
위치 : 이리시 창인동 신흥교회 앞
☎ 51-0111

서범석한의원

원장 서 범 석 (물베)
위치 : 전북대 앞 덕진성당 옆
전주시 덕진동 1가 1262-16
☎ 72-2665 · 75-3533

교구 소식

- * 축/ 작은 자매의 집 준공 및 기공식: 5월 5일 오전 11시 집전: 박정일 주교
장소: 전북 이리시 월성동 해바라기 농장내 「작은 자매의 집」
- 1. 관구성직자 체육대회: 4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광주 가톨릭대학
- 2. 사회복지 「사랑의 다리」 후원회 월례미사: 5월 2일 오전 10시 30분 주례: 박정일 주교
- 3. 제 13기 예비자 교리반 모집: 5월 20(금)일까지 교육국으로 신청(85-0041)
- 4. "선택": 주제 - '서로 알고 사랑하며 나누기 위하여' 회비-20,000원 접수순 60명
내용-젊은이들의 올바른 삶의 길을 제시한다. 일시- 5. 20(금) 후 6시~ 22(일)오후 5시
장소-천호 피정의 집 대상-모든 남·여 젊은이 신청-교구청 교육국 ☎ 85-0041)
- 5. 성모 신심 세미나: 일시-5월 4일 오후 7시-5일 오후 6시 장소-전주 전동천주교회
강사-이범주 신부님 참가비-1,500원 참석대상-전주교구 레지오 간부 성령봉사자
- 6. 테클라 성모모임: 5월 1일 오후 2시 성마오로서원 2층
- 7. 성모의 푸른군대 모임: 5월 5일 덕진성당(문비오 신부님 초청)
- 8. 5월 쉼꼴라레 수도자 모임: 12일, 26일, 오후 2시 30분 가톨릭 센터
- 9. 성모 기사회: 오전반-첫 토(7 일) 오전 10시 청년, 직장인-첫 토(7일) 오후 6시 효자 성당
- 10. 군중후원회 월례회: 5월 2일 오후 7시 30분

* 축/영명(성 필립보, 야고보): 성민호, 김동준, 박병준 신부님

지난 주 숲정이 2면의 전주교구에 진출된 수도회 소개에서 가리마스 수녀회(72-1222)와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86-3454)가 누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잡 간

어둠의 바다에서 하늘로

장자(莊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둠과 침묵이 가득한 북쪽 바다에서 크게 자란 곤이라는 물고기가 봉이라는 새로 화(化)했습니다. 봉은 바람을 타고 어두운 바다로부터 하늘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큰 날개로 천하를 드리우고 저 남해의 살기좋은 곳을 향해 유유히 날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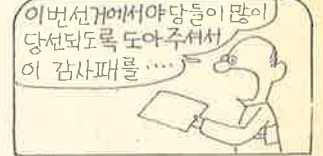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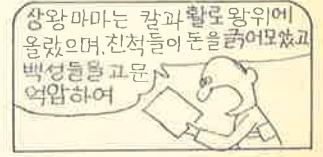
여기서 화(化)한다는 것은 삶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삶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곤에게 바다는 익숙한 삶의 터전이며, 여기에서 벗어나 변화한다는 것은 큰 회생이 요구됩니다. 곤은 어둠의 바다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때가 되자, 혼신의 힘을 다해 자기를 버림으로써 변화를 이룩했던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면 큰 파문이 일지만, 또한 거기에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은 죽음과 삶, 바다와 하늘, 북과 남을 연결하여 하나로 통하게 하는 길입니다. 만일 곤이 회생과 변화를 두려워하여 물고기로 남아 있었다면 그 길은 결코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봉은 악동하는 생명의 모습이 살아있는 자연의 나라로 날아갑니다. 이와 같이 장자는 곤과 봉에 비유하여 사람이 현세의 속박을 벗어버리고 무한한 자유와 자연의 경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했습니다.

사람이 봉처럼 자유로워지고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창조의 원천, 하느님과 사람과 자연이 하나의 생명처럼 통해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먼저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세상을 버려야 하는 회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참생명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곤이 되셨다가 마침내 봉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둠의 바다에 갇혀있는 곤과도 같은 우리들을 봉으로 봉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막혔던 길을 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통해 놓으신 이 길에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십이 (769) 김병오



□ 1분 명상

내게 힘을 주시는 분을 통해서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필립 4, 13)

명동피부과의원

주부사원모집

한국 자동차보험(주) 동전주 영업소
소장: 윤상호(요셉)
연락처: 82-6527
자동차/ 화재/ 해상 특종/ 장기보험

각종 행사(촬영전문)

영진비디오

교육용 및 성서 일반 테이프 판매 및 대여

전주 백화점-객사 사이
전화 84-4094

현대미용학원

전주시 서노송동 631-3 (코아백화점 옆)

김금순

☎ 주 86-2211
야 74-1383

신원건축사무소

건축설계·건축허가 공사감리 대행업의 전문

1급 건축사 김철수(요한금언)

전주시 진북동 294-10
☎ 주 3-7780-72-8500
야 3-1449

동양화 매매·교급표구일체 각종 작품 주문 제작·성화 병풍 액자 족자

전주화랑

한택현(마르첼리노)

위치: 도청 옆 대한생명 뒤
전화 85-2220

☐삼례·익산지구 본당소식☐

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 고산

사제관 73-4019 주임신부 양경배
수녀원 73-4110 사목회장 고석재

1. 구역 형제회 :

- 본당-오늘 저녁 8시,
- 공소-8일 저녁

2. **중고생 소풍** : 5일 중, 고생은 전원 참석 바람
 3. **예비자 교리** : 성인-매주 일요일 공식미사 후 학생-매주 토요일 학생미사 후, 예비자는 교리에 빠지지 맙시다.
 4. **성상회** : 매월 둘째주 일요일
- ☐ 지난주 봉헌금 : 150,560원

* 금마

사제관 53-7187 주임신부 이덕근
사무실 53-6244 사목회장 김상용
수녀원 53-7157

1. **신앙 특강** : 오늘 공식미사 강론시간 제목 : 바랍직한 기도 생활
 2. **사목회 임원 (전례분과) 개편** : 손근표 (스테파노) 형제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중남 (안토니오) 형제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경으로 하느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0.1~32 마태오 복음 10.1~42
 4. **불우이웃 돕기 폐품 수집** : 미사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5. **모임** : 사목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모니카회 : 5일(목) 어머니 미사 후
 6. **사제양성 후원 저금통** : 속히 반납 바랍니다.
 7. 이번주는 성전 환경정리를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 ☐ 지난주 봉헌금 : 138,700원 교무금 : 14,000원
2차 헌금 : 59,440원

* 삼례

사제관 73-8469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9-2018 사목회장 김을수
수녀원 9-3196

1. **오늘의 모임** : 봉헌회 월례회(공식미사 후), 자모회(밤8시)
 2. **성시간 및 성체강복** : 5월 7일(토) 특전미사 후
 3. **아버지 미사(찬미의 밤)** : 매주 수요일 밤 8시 *썸머타임시 9시
 4. **5월 5일 미사 안내** : 아침 6시, 10시 미사 없음(어린이 날로 인함)
 5. **감사합니다** : 자모회에서 성체조배실 시설비 부담(534,000원)
 6. **썸머타임 중 미사시간** : 월-오전6시, 토, 어머니미사-오전 10시 주일 공식미사-오전 10시, 토요 특전 및 평일 밤미사-오후 9시
 7. **금주 전례** : 특전-이재우, 이선희, 공식-김공명, 양경희
차주 전례 : 특전-백남용, 박경희, 공식-정남선, 김복숙
제물봉헌 : 금주-정남선 부부, 차주-최병윤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 428,100원 교무금 : 477,500원
감사헌금 : 5,000원

* 여산

사제관 53-5016 주임신부 정천봉
사무실 사목회장 이상영

1. **구역 반모임** : 5월 3일-영전, 유성, 서촌, 뒷말 5월 5일-동촌, 교창, 남산, 두여리
 2. **교리교사 모집합니다.**
 3. **금주 전례** : 독서-①김기원 ②현영식 봉헌-전상규, 박성희 부부
차주 전례 : 독서-①황덕순 ②송미녀 봉헌-이영근, 소춘옥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 144,880원 교무금 : 50,000원

“아무리 미소한 창조물일지라도 하느님은 오직 그것 하나만을 염려하시고 당신 손안에 보호하신다.”

* 용안

사제관 6-2766 주임신부 정태현
사무실 사목회장 서홍원

1. **성모회** : 5월 18일 10시 미사
 2. **가정방문 일정** : • 5월 4일 오전-맹산, 오후-제성, 두동 • 6일 오전-성당, 교향, 오후-난포, 신은, • 11일 하루-석동 1,2구, • 12일 오전-법성, 오후-구산, • 13일 오전-송산 오후-덕용, 중신, • 14일 오전-교동, 성치
 3. **금주 전례** : 해설-정대홍, 독서-송봉래, 박영란 봉헌-전종욱 부부
차주 전례 : 해설-송형식, 독서-김양수, 이정자 봉헌-박인규 부부
- ☐ 부활 제 2주일 봉헌금 : 211,000원

* 함열

사제관 6-0165 주임신부 서석기
사무실 6-0065 사목회장 김종대
수녀원 6-1539

1. **사목회, 청년회, 가리따스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푸르실리스타, 울드레아**-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성모 성년 전국대회** : 5월 15일 청주 공설운동장
 4. **성전보수공사에 협조하신 분** : 김예환-100,000원, 김광남-50,000원 박평춘, 이동윤, 김영재, 최삼식, 이주택-각 2만원 서일봉-2,000원 강복성, 김창복, 윤석기, 이창훈-각 1만원 권석배-25,000원, 이국성, 이정원, 김봉선, 송명수-각 5천원 김종근-15,000원 소계 : 372,000원 누계 : 4,847,000원
 5. **청년회 단합대회에 협조하신 분** -김용부 20,000원
 6. **기림미사** : 5월 11시 석매리 박배도로 6일 10시 30분 동지산 김안팠라
 7. **축/결혼** : 오늘 11시 30분 신랑 : 유경선, 신부 : 박영옥(테레사)
 8. **금주 전례** : 해설-김광태, 독서-①김종익 ②류향자
- ☐ 지난주 봉헌금 : 345,070원 교무금 : 203,000원

* 화산

사제관 6-3671 주임신부 김종길
사무실 사목회장 김상규

1. 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2. **사목회 월례회** : 공식미사 후 사무실
 3. **주일학교** : 부모님의 협조를 바랍니다.
 4. **차주 전례** : 첫미사-김영주, 김영자 공식미사-박종철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 118,720원

* 황등

사제관 52-2541 주임신부 김순태
사무실 사목회장 장현순
수녀원 52-7634

1. **사목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지순례** : 5월 6일 장소-천진암 회비-5,000원
 3. **금주 목요 공소 방문** : 삼기 공소
 4. **울드레아** : 저녁미사 후
 5. **영세 특별 교리** : 5월 10-11일 오후 2시부터
 6. **5월 성당 청소** : 정의 거울 pr.
 7. **금주 전례** : 해설-김낙천 독서-고성봉, 천정순 봉헌-최기섭 부부
차주 전례 : 해설-김종규, 독서-하순호, 김영옥 봉헌-정귀환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 231,000원 특별헌금 : 본당 천봉순 십일조 헌금 감사합니다.